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1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8월 10일) 2018년 9월 19일 수요일



"비방 없는 공명선거 약속"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비방과 흑색선전 없는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했다. 혜총 스님을 제외한 후보들은 9월 11일 자격심사 이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종회의장실에 모여 공명선거를 약속했다. 사진 왼쪽부터 기호3번 정우 스님, 기호4번 일면 스님, 기호2번 원행 스님, 중앙선관위원장 세영 스님. 기호1번 혜총 스님은 개인 일정상 불참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후보들 공약 발표… '표심 잡기' 시동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들 12일 일제히 회견

교구중심제 · 비구니 권익 공통
승가복지 · 교육 · 포교도 비슷해
각 후보 선거대책본부 소규모로
세력 과시하는 선거분위기 지양
모두 해인사승가대학 동문 출신

신성민 · 노덕현 · 윤호섭 기자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이 자격심사가 끝난 다음날인 9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종책발표 기자회견은 물론 종정 진제 스님 예방 등 28일 투표일 전까지 선거인단 표심 공략에 총력을 쏟는다. 또한 각 후보들이 제시한 종책들이 대동소이해 선거운동이 당락의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호1번 혜총 · 기호2번 원행 · 기호3번 정우 · 기호4번 일면 스님은 9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열린 '총무원장 후보 정견발표 및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자의 종책을 홍보했다.

혜총 스님 "수행하는 종단"

먼저 혜총 스님은 △수행하는 종단 △전법하는 종단 △함께하는 종단 △존경받는 승단이라는 4대 운영기조와 28개 종책과제를 공약으로 내놨다.

'수행하는 종단'을 위해 혜총 스님은 원로 중심의 안거 수행과 일상 중심의 생활 수행을 비롯해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제도 마련, 수행자를 위한 평생교육원 설립 등을 제안했다. '전법하는 종단'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신도시에 거점 포교사찰 설립 · 지원 △포교원 행정을 전략개발로 전환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지원 확대 등을 공약 사업으로 제시했다. '함께하는 종단'은 사부대중의 종단 참여가 핵심이다.

혜총 스님 선거대책위원회에는 이전 선거부터 혜총 스님을 도운 위드아시아 이사장 지원 스님, 한국불교문화예술인협회 대표 동성 스님이 참여하고 있다.

원행 스님 "대중공의 우선"

원행 스님은 前총무원장 설정 스님 불신임 과정서 불거진 종단안팎의 갈등을 인식한 듯 '소통과 화합을 통한 대중공의'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스님은 △하심의 마음으로 소통과 화합 △대중공의 통한 지속적 혁신 △노후 걱정 없는 승가복지 △교구중심제 안착 △새로운 불교문화 시대 △미래지향적인 교육과 포교 △지혜와 자비, 이웃과 사회에 회향 등을 골자로 한 7대 중점 종책을 제시했다.

원행 스님은 이번 선거에서 별도의 선거대책본부를 꾸리지 않았다. 불미스런 일로 인한 전임 총무원장 궐위 상황에서 선거가 열려 조용한 선거운동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대변인 일감 스님을 비롯해 前사서실장 삼혜 스님, 금산사 문중 몇몇 스님들만이 실무를 도울 뿐이다.

정우 스님 "교구중심 종무행정"

정우 스님은 선거 공약으로 '10대 운영기조 36대 사업과제'를 제시했다. 스님이 약속한 10대 운영기조는 △교구본사 중심 종무행정 △소통과 자문 통한 종단 운영 △불교문화 창달 △전법과 포교활동 지원 △출가 인재 육성하는 승가교육 △승가복지제도 확립 △비구니 특별교구 설립과 위상 강화 △종단의 사회적 역할 강화 △종헌 종법령 재정비 △수행가풍 진작과 화합종단 구현이다.

정우 스님의 선거대책위원회는 선대위원장으로 현문 스님(영축문화재단 이사장)이, 본부장으로는 조계종 前기획실장 승원 스님이, 대변인은 중앙종회의원 성화 스님과 (사)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일면 스님 "종단 위상 제고"

일면 스님은 '시대정신으로 새롭게 불교발전을 이끌겠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8대 핵심종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일면 스님이 공약한 8대 핵심 종책은 △종헌 질서 확립과 종단 위상제고 △종무행정 교구 이관 △사찰 재정관리 투명화 △승려복지 종단의무화 확대 및 내실화 △종단 교육혁신 강화 및 포교종책 다각화 △불교전통 문화 육성과 지원 △종단의 사회적 책임과 공동선 실천 △불교관련 제법령 및 종법 제개정 등이다.

일면 스님 선거대책위원회는 공동선대위위원장으로 거창 아림사 회주 선용 스님, 前선운사 주지 법현 스님, 대변인은 가평 축령사 주지 혜철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제36대 총무원장선거에 입후보한 스님들은 모두 해인사승가대학 동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해인사승가대학 동문회에 따르면 혜총 스님은 4기, 일면 스님은 9기, 정우 스님은 14기, 원행 스님은 24기다.

선거기획 특집 A4~7

"자리이타 정신 구현 노력" 韓中日 불교도 '한 목소리'

21차 고베대회서… 선언문 채택

3국 불교도 300여명 모여
세계평화 정착 기여 다짐
태풍 피해 희생자 위로도

한중일 3국 불교 지도자들이 일본 고베에 모여 세계 평화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최근 일본에 발생한 지진과 태풍으로 희생당한 이들의 넋을 위로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중국불교협회는 9월 12일 일본 고베시 입정교성회 고베교회에서 제21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일본대회 본행사인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수석부회장 문덕 스님(천태종 총무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불교대표단 90여 명, 일본불교 대표단(단장 다케카쿠쵸 스님 ·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100여 명, 중국불교 대표단(단장 연각 스님 ·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100여 명 등 300여 명이 참가했다.

평화기원법회는 일중한 국제불교교류협의회장 이토 유이신(伊藤 唯眞) 스님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토 유이신 스님은 개회사에서 "한국, 중국, 일본 삼국 불교도가 하나 돼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고, 화합공생(和合共生)의 가르침을 세계 인류가 귀의할 기본 이념으로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삼국 불교도의 단결이 한층 강해지고 깊어지며, 나아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염원했다.

이어 일본 · 중국 · 한국 순으로 각국 전통불교의식이 이어졌다. 한국측 불교의식은 오분향례 · 칠정례, 석가모니불 정근, 축원(부회장 홍파 스님), 반야심경 독경으로 진행됐다. 의식 후에는 단장 문덕 스님이 세계평화기원 메시지를 발표했다.

한국 측 단장 문덕 스님은 세계평화기원 메시지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었던 한반도에서 화해와 평화의 꽃이 피어나고 있다. 남과 북, 그리고 관련 국가들이 한마음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삼국의 불자들은 세계일화,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평화를 앞당기는 정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세계 평화를 위해 불교도들이 노력할 것임을 선언했다.

또한 평화기원문 발표에 앞서 문덕 스님은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아 홋카이도에 발생한 지진과 오사카 등 태풍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자비광명으로 속히 재난을 극복해 평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기원했다.

삼국 불교도는 또 공동선언문을 채택, "자비심을 근본으로 삼아 현대사회에 알맞은 형태로 사람들의 마음에 한층 다가서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안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했다.

윤호섭 기자



제21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일본대회에 참가한 한국 대표단이 세계평화기원법회서 전통불교의식을 올리는 모습.

다음호는 추석 연휴 관계로 배송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승가의 디딤돌
포교의 마중물

불법홍포를 위해 바쳐왔던 원력을 이제 종단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바치고자 합니다.
항상 하심하며, 종도와 대중을 섬기는 종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존경받는 승가가 되기 위해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도약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어 대중의 마음에 신심의 샘물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기호 3번 정 우

